

#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과 이들간의 인과 관계\*

Characteristics of and Caus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Family-of-Origin  
Experiences, Marital Conflict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전연진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  
*Researcher : Chun, Yeun Ji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general tendencies of parental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conflict and their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s a function of a child's sex, as well a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ree hundred and five 4th and 5th graders filled out the Korean Version of Achenbach's Child Behavior Checklist. Parents of these children answered the Family-of-Origin Scale and Marital Conflict Invento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athers experienced more of emotional cut-off from their family of origin than mothers did. However, mothers had more of triangulation and emotional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of origin than fathers did. 2) Both fathers and mothers reported that mothers had more of marital conflicts. 3) Daughters showed more physical symptoms than sons while sons showed more delinquent

Corresponding Author: Moon Ja Chu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o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9  
E-mail: mjchung@yonsei.ac.kr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연세대학교 연구처 정책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제임.

behaviors. 4) While parental experiences from the family-of-origin effected the parents' marital conflicts, they didn't influence the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rough marital conflicts.

**주제어(Key Words):** 원가족 경험(family-of-origin experience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내면화 행동문제(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외현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 I. 서론

최근 급증하는 아동의 행동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실제로 4, 5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전연진(2002)에 따르면, 약 10%의 아동이 임상적 수준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게 되나 일반적으로 부적응 행동, 이상행동, 정신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으로 표현된다(이영화·유가호, 2001). 정문자(1988)는 행동문제를 아동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으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범위를 벗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동문제는 대인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으로 사회적 기대나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남아가 여아보다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행동문제 유형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령기 여아는 부끄러움, 불안, 신체에 대한 불평 등의 행동문제를 더 보였고(Erne, 1979), 남아는 대인 및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오경자, 1991; McGee, Feehan, Williams, & Anderson, 1992).

이러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과 가족환경을 들 수 있다. 신은영과 김경연(1996)의 연구에서, 아동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준 사건들은 모두 부모와 관련된 것으로 부모의 이혼, 부모의 질병, 부모의 부부싸움, 부모의 애정철회였다. 이 중 부모의 이혼은 이혼 그 자체보다

이혼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부부간 결혼 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이민식, 1999; 장휘숙, 1997; Osborne & Fincham, 1996; Peterson & Zill, 1986).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 비행 및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미성숙 행동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희·김경연, 1999; 이민식, 1999; Harrist & Ainslie, 1998).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은 또 한 자신의 원가족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가족의 상호작용은 분화라는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Bowen(1978)이 개념화한 분화는, 주로 대인간 거리를 유지하는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적 역동으로 개인이 가족과 적절하게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다(Anderson & Sabatelli, 1992). 이러한 분화는 개인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원가족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된다(Anderson & Sabatelli, 1992; Bray, Williamson, & Malone, 1986; Bowen, 1978). 원가족 분화경험과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등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이 원가족에서 잘 분화할수록 부부갈등은 낮았으며(Bartle-Haring & Sabatelli, 1998; Bowen, 1978; Cubberly, 1988; Lim & Jennings, 1996), 결혼 만족도는 높았다(Haws & Mallinckrodt, 1998; Lim & Jennings, 1996).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는 원가족에서 잘 분화할수록 부부갈등이 낮았고(서연석, 1999; 이창만, 1992; 한미향, 1999), 결혼적응과(김현정·김명자, 1999)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유은희, 1991). 구체적으로,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같은 가족투사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는 심한 부부갈등이 있었고(이창만, 1992; 한미향, 1999), 결혼안정성이 떨어졌다(전춘애, 1994). 즉,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경험은 부부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가족체계 이론과 임상사례에서 살펴보면,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체계를 거쳐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부부문제나 자녀문제 상담의 경우 문제의 이면에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모들과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었다(정문자, 2001).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임상 사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모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아동의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Hetherington, & Reiss, 1999; Osborne & Fincham, 1996)에 따라 아동의 성에 따라 각각의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아동의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은 그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는 변인들이기에 각 변인의 기초적인 일반적 성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성원의 성에 따라 관계에 대해 지각하는 바가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가족치료 개입을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가족 부모의 성에 따른 아동 부모의 분화 경험간 차이와 부부갈등 행동에 대한 부모간 지각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전연진과 정문자(2003)의 연구를 기초로 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먼저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부부갈등, 아동 행동문제라는 각 변인들의 구체적인 성향을 살펴보고,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경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분석방법인 중다집단 분석을 활용한 모형검증을 사용하여 이들 변인들간에 어떠한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를 아동의 성에 따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은 어떠한가?

1-1. 부모의 원가족 부모에 대한 분화 경험의 일반적 성향은 어떠한가, 이는 원가족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부부갈등의 일반적 성향은 어떠한가, 이는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은 어떠한가,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두 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생 160명(남아-77명, 여아-83명)과 5학년생 145명(남아-72명, 여아-73명)의 총 305명과 그들의 부모 305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각 학급의 교사가 실시·수거하였으며, 아버지용, 어머니용 질문지는 부모가 각각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유형이 12세를 기점으로 청소년기의 행동문제 유형으로 바뀐다는 선행연구 결과(Achenbach, 1991)와 질문지 응답가능 연령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4,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구성은 남아가 48.9%, 여아가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변 인	남아(n=149) 빈도(%)	여아(n=156) 빈도(%)	전체(n=305) 빈도(%)
아동의 학년			
4학년	77(51.7)	83(53.2)	160(52.5)
5학년	72(48.3)	73(46.8)	145(47.5)
아버지 연령			
30대	23(15.4)	34(21.8)	57(18.6)
40대	120(80.6)	111(71.1)	231(75.8)
50대	2( 1.3)	6( 3.9)	8( 2.7)
무응답	4( 2.7)	5( 3.2)	9( 2.9)
어머니 연령			
30대	68(45.7)	79(50.6)	147(48.2)
40대	70(47.0)	63(40.4)	133(43.6)
50대	0( 0.0)	2( 1.3)	2( 0.7)
무응답	11( 7.3)	12( 7.7)	23( 7.5)
아버지 학력			
국졸	1( 0.7)	1( 0.6)	2( 0.7)
중졸	3( 2.0)	2( 1.3)	5( 1.6)
고졸	33(22.1)	36(23.1)	69(22.6)
대중퇴/전문대졸	15(10.1)	15( 9.6)	30( 9.8)
대졸	64(43.0)	71(45.5)	135(44.3)
대학원중퇴	2( 1.3)	0( 0.0)	2( 0.7)
대학원이상	27(18.1)	29(18.6)	56(18.3)
무응답	4( 2.7)	2( 1.3)	6( 2.0)
어머니 학력			
중졸	4( 2.7)	1( 0.6)	5( 1.6)
고졸	51(34.2)	49(31.4)	100(32.8)
대중퇴/전문대졸	13( 8.7)	19(12.2)	32(10.5)
대졸	65(43.6)	60(38.5)	125(41.0)
대학원 중퇴	0( 0.0)	2( 1.3)	2( 0.7)
대학원이상	5( 3.4)	10( 6.4)	15( 4.9)
무응답	11( 7.4)	15( 9.6)	26( 8.5)
아버지 직업			
노무/생산·기술직	19(12.8)	15( 9.6)	34(11.1)
판매 및 서비스	24(16.1)	25(16.0)	49(16.1)
사무직	36(24.2)	48(30.8)	84(27.5)
관리직	17(11.4)	17(10.9)	34(11.1)
전문직	23(15.4)	22(14.1)	45(14.8)
무 직	1( 0.7)	0( 0.0)	1( 0.3)
기 타	27(18.1)	25(16.0)	52(17.1)
무응답	2( 1.3)	4( 2.6)	6( 2.0)
어머니 직업			
노무/생산·기술직	7( 4.7)	3( 1.9)	10( 3.3)
판매 및 서비스	19(12.8)	22(14.1)	41(13.4)
사무직	4( 2.7)	8( 5.2)	12( 3.9)
관리직	0( 0.0)	2( 1.3)	2( 0.7)

〈표 1〉 계속

변 인	남아(n=149) 빈도(%)	여아(n=156) 빈도(%)	전체(n=305) 빈도(%)
전문직	8( 5.4)	13( 8.3)	21( 6.9)
주 부	83(55.6)	83(53.2)	166(54.4)
기 타	12( 8.1)	6( 3.8)	18( 5.9)
무응답	16(10.7)	19(12.2)	35(11.5)
월가계수입			
100만원 미만	6( 4.0)	1( 0.6)	7( 2.3)
200만원 미만	18(12.1)	25(16.0)	43(14.1)
300만원 미만	36(24.2)	35(22.5)	71(23.3)
400만원 미만	34(22.8)	31(19.9)	65(21.3)
500만원 미만	23(15.4)	22(14.1)	45(14.8)
500만원 이상	27(18.1)	39(25.0)	66(21.6)
무응답	5( 3.4)	3( 1.9)	8( 2.6)

51.1%였고,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52.5%, 5학년이 47.5%였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부모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44.3% 대 44.3%)과 고졸(22.6% 대 32.8%)이 많았다. 부모의 직업으로, 아버지는 사무직(27.5%)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16.1%)의 순서로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주부(54.4%)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13.4%)이었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23.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21.6%), 300만원대(21.3%)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의 원가족 경험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연진(2002)의 원가족 분화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적 단절'(12문항), '삼각화'(7문항), '정서적 분리'(7문항)가 있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단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삼각화'는 특별한 형태의 세 사람간 관계를 의미하는 것

으로 가족에서는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서적 분리'는 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문항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척도의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척도의 점수 산출 방법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 정도에 대해 각각 응답한 후 이를 합산한다. 원가족 분화경험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전체 문항에 대해 아버지는 .88, 어머니도 .88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아버지는 정서적 단절 .94, 삼각화 .91, 정서적 분리 .73이었고, 어머니는 정서적 단절 .93, 삼각화 .87, 정서적 분리 .85였다.

## 2) 부부갈등

Jeon(1994)이 개발한 결혼갈등 측정도구(Marital Conflict Inventory)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직·간접적 갈등 표현' 9문항, '합리적 해결' 8문항, 그리고 '갈등 회피' 9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점수 산출 방법은 응답자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배우자에게 한 행동과 배우자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각 하위영역별로 합산하여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점수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점수를 각각 산출한다. 따라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직·간접적 갈등 표현이 0점에서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빈번하고 적대적인 갈등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는 아버지가 .74, 어머니가 .78이었다.

## 3)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를 사

용하였다. K-YSR의 119문항 중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은 우울·불안 16문항, 위축 7문항, 신체화 증상 9문항이며, 이 중 위축과 우울·불안 영역에 공통된 한 개 문항이 있어 내면화 행동문제는 총 31문항이다.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의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K-YSR의 각 문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위축이 0점에서 14점, 신체적 증상이 0점에서 18점, 우울·불안은 0점에서 32점이며, 비행은 0점에서 22점, 공격성이 0점에서 38점이다. 따라서 내면화 행동문제의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2점, 외현화 행동문제는 0점에서 6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YSR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도구 전체에 대해서는 .90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내면화 행동문제는 .87, 외현화 행동문제는 .8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조사는 2002년 10월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두 개 초등학교의 4, 5학년 아동 500명과 그들의 부모 500쌍이었다.

아동용 질문지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로는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가 있어 부모 각각이 응답한 것을 아동을 통해 수거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500부 중 345부가 회수(69%)되었는데, 본 연구의 특성 상 양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과 질문지에 대한 응답정도가 충분한 아동과 부모 305쌍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

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1번인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hi^2$ , 표준카이사승치( $\chi^2$ 를 자유도로 나눈 비), NNFI(Non-Normed Fit Index, 또는 Tucker-Lewis Index: TL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번을 위해 설정한 모형에서 이론변인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모의 부부갈등,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등 총 5개이다. 이 이론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들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부모에 대한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측정도구의 세가지 하위 영역인 '직·간접적 갈등 표현', '합리적 해결', '갈등회피' 영역을 합산하여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산출하여 이를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합리적 해결' 영역은 긍정적 문항이므로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공격성으로 측정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

##### 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일반적 성향

부모의 원가족 경험의 일반적 성향을 알아보기와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지각한 분화 경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원가족 부모에 대한 정서적 단절 경험 총점의 문항평균 점수는 원가족 아버지에 대해서는 2.17점으로 평균적으로 2점인 '별로 그렇지 않다'와 3점인 '보통이다' 사이에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1.73점으로 1점인 '전혀 그렇지 않다'와 2점인 '별로 그렇지 않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삼각화 경험은 원가족 아버지(M: 1.66점)와 어머니(M: 1.96점)에 대한 경험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정서적 분리 경험은 원가족 아버지(M: 3.22점)와 어머니(M: 3.68점)에 대한 경험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이다'와 '조금 그렇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경험은 많이 하지 않은 반면 정서적 분리 경험은 보통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일반적 성향을 살펴보면, 원가족 부모에 대한 정서적 단절

<표 2> 원가족 부모에 대한 부모의 분화 경험의 평균과 차이 검증

(N=610)

변인	하위차원	가능한 점수 범위	원가족 부모		paired-t
			아버지(n=305) M (SD)	어머니(n=305) M (SD)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경험	정서적단절	12 - 60	26.02(10.83)	20.75( 9.22)	10.00***
	삼각화	7 - 35	11.59( 4.47)	13.69( 5.68)	- 8.75***
	정서적분리	7 - 35	22.39( 5.08)	25.76( 4.86)	-11.89***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경험	정서적단절	12 - 60	24.55(10.86)	21.62( 9.15)	4.82***
	삼각화	7 - 35	11.27( 4.16)	13.83( 5.30)	-10.80***
	정서적분리	7 - 35	21.95( 5.57)	24.86( 5.38)	- 8.52***

\*\*\* p < .001

경험 총점의 문항평균 점수는 원가족 아버지에 대해서는 2.04점으로 평균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사이에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1.80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삼각화 경험은 원가족 아버지(M: 1.61점)와 어머니(M: 1.97점)에 대한 경험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정서적 분리 경험은 원가족 아버지(M: 3.13점)와 어머니(M: 3.55점)에 대한 경험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이다'와 '조금 그렇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즉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경험은 많이 하지 않은 반면 정서적 분리 경험은 보통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점수들을 토대로 부모가 원가족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경험한 분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원가족 분화 경험의 하위차원인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원가족의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한 반면(아버지:  $t=10.00, p<.001$ , 어머니:  $t=4.82, p<.001$ ), 삼각화(아버지:  $t=-8.75, p<.001$ , 어머니:  $t<-10.89, p<.001$ )와 정서적 분리(아버지:  $t<-11.89, p<.001$ ; 어머니:  $t=-8.52, p<.001$ )는 원가족의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이 경험하였다.

2) 부부갈등의 일반적 성향

부부갈등에 대한 일반적 성향을 살펴보고, 부모간 부부갈등 지각의 차이를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간 부부갈등의 일반적 성향을 살펴보면, '직·간접적 갈등 표현' 영역의 총점의 문항평균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2점 미만으로(아버지: 1.85, 어머니: 1.83) 평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가끔 그렇다' 사이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해결'은 아버지(M: 3.44)와 어머니(M: 3.41) 모두 문항 평균 점수가 3점과 4점인 '자주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에 위치하였다. '갈등 회피'는 아버지(M: 2.7)와 어머니(M: 2.67) 모두 문항 평균 점수가 2점과 3점 사이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가끔 그렇다'와 '자주 그렇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즉 부모는 모두 직·간접적 갈등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 반면, 갈등회피는 가끔, 합리적 해결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부부갈등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세가지 하위 영역 모두 남편이 지각한 점수와 아내가 지각한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부부간에 부부갈등 정도를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점수는 도구 특성상 아버지, 어머니 각각이 부부갈등시 보이는 자신의 행동과 배우자가 보이는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각각 평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일반적 성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시 보이는 자신의 행동과 배우자가 보이는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가 부부갈등시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직·간접적 갈등 표현' 영역을 살펴보면, 부모는 모두 부부갈등시 보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

<표 3> 부부갈등의 평균과 부모간 부부갈등 지각의 차이 검증

변 인	가능한 점수 범위	아버지 지각 (n=305) M (SD)	어머니 지각 (n=305) M (SD)	paired-t
직·간접적 갈등 표현	0 - 90	33.30( 9.94)	32.91( 9.96)	-9.69
합리적 해결	0 - 80	55.02( 7.08)	54.53( 8.08)	-1.06
갈등회피	0 - 90	48.60( 7.18)	48.13( 7.50)	- .95

〈표 4〉 부부갈등시 자신의 행동지각과 배우자 행동 지각간 차이 검증

보고자	변인	가능한 점수 범위	자신이 보여준 부부갈등 행동 (n=305) M (SD)	배우자가 보여준 부부갈등 행동 (n=305) M (SD)	paired t
아버지	직·간접적 갈등 표현 합리적 해결 갈등회피	0 - 45	15.99( 5.33)	17.30( 5.50)	-5.34***
		0 - 40	28.08( 4.33)	26.95( 4.54)	3.67***
		0 - 45	24.65( 4.18)	23.95( 4.26)	2.73**
어머니	직·간접적 갈등 표현 합리적 해결 갈등회피	0 - 45	16.95( 4.91)	15.97( 5.86)	4.01***
		0 - 40	27.78( 4.43)	26.75( 5.38)	3.18**
		0 - 45	24.48( 4.27)	23.65( 4.70)	2.95**

\*\*p&lt;.01, \*\*\*p&lt;.001

한 지각과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지각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부부갈등시 '직·간접적 갈등 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고, 어머니는 자신이 배우자인 아버지보다 부부갈등시 '직·간접적 갈등 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즉 부부갈등시 부모간 '직·간접적 갈등 표현'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어머니가 '직·간접적 갈등 표현'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합리적 해결' 영역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부갈등시 보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배우자인 어머니에 비해 자신이 더 합리적 해결을 많이 한다고 지각한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비해 자신이 더 합리적 해결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부갈등시 자신이 배우자보다 '합리적 해결'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갈등회피' 영역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지각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부갈등시 자신이 배우자보다 회피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부부갈등시 '직·간접적 갈등 표현'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어머니가 '직·간접적 갈등 표현'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한 반면, '합리적 해결' 행동, '갈등회피'

행동은 부모 모두 자신이 배우자보다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고 있어 부모가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

아동의 행동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나타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총점의 문항 평균 점수는 남아, 여아 모두 1점미만으로(남아 평균 점수: 13.3, 여아 평균 점수: 14.7) 내면화 행동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외현화 행동

〈표 5〉 아동의 행동문제의 평균과 차이검증

변인	통계치		성		t
	남(n=149)	여(n=156)	남(n=149)	여(n=156)	
내면화 행동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9	2.5	3.1	2.2	- .6
	2.8	2.5	3.6	3.0	-2.5**
	7.9	5.3	8.5	4.9	-1.0
외현화 행동문제	2.7	1.9	2.1	1.5	3.1**
	10.8	5.1	10.1	4.9	1.1
	13.3	8.0	14.7	8.2	-1.4
	13.5	6.4	12.3	5.8	1.8

\*\*p&lt;.01



문제 역시 총점의 문항 평균 점수가 1점 미만으로 (남아 평균 점수: 13.5, 여아 평균 점수: 12.3) 외현화 행동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하위영역인 비행과 공격성에서도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중 신체 증상과 외현화 행동문제 중 비행이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증상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보이는 반면( $t=-2.5, p<.01$ ) 비행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 p<.01$ ).

## 2.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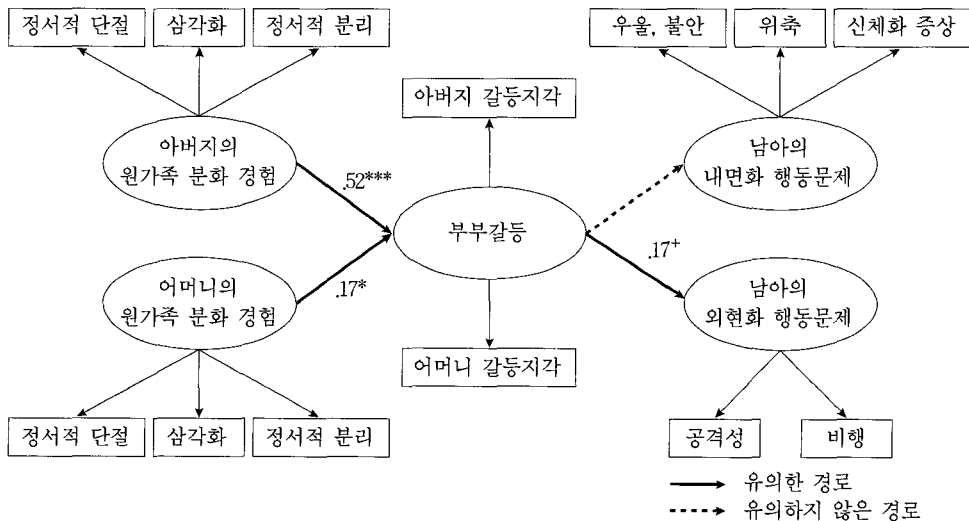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에 따라 그 영향 경로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남아, 여아집단에 모두 적

용할 수 있는 공통 구조방정식 모형을 산출한 후 한 모집단의 모수와 다른 집단의 모수간의 비교가 가능한 중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603.8(df=184, p=.00)$ 이며, 표준카이자승치는 3.28, TLI=.97, CFI=.98, RMSEA=.06으로 좋은 적합도 수준<sup>1)</sup>을 보였다.

먼저 남아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1>과 같다.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갈등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

1)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hi^2$ , 표준카이자승치( $\chi^2$ 를 자유도로 나눈 비), NNFI(Non-Normed Fit Index, 또는 Tucker-Lewis Index: TL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의 판단기준은  $\chi^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카이자승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그 값이 5 이하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Tanaka, 1987).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RMSEA는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이다.



+ $p<.06$ , \* $p<.05$ , \*\*\* $p<.001$

<그림 1> 남아집단 분석 결과 유의한 경로와 표준화 계수

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부갈등은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아들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아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아들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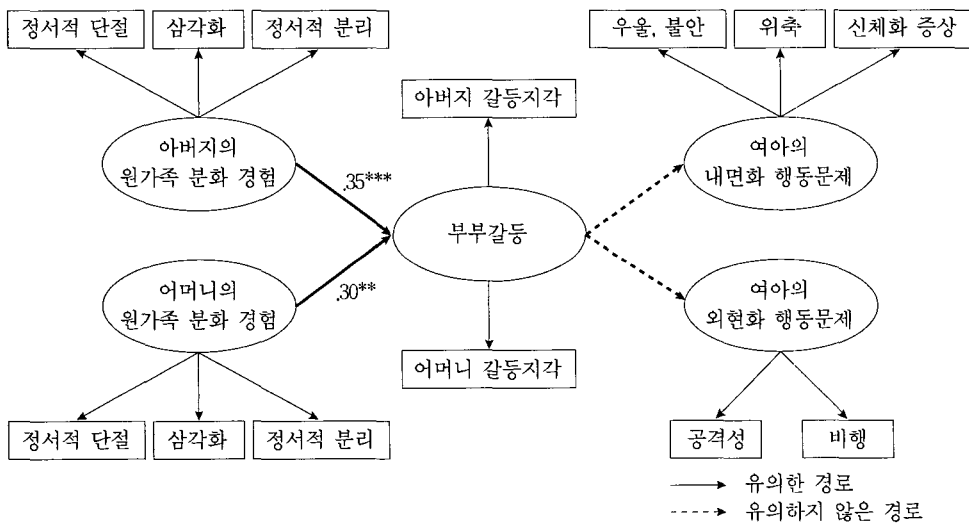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아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아들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아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아들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의 행동문제의 성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 아버지와의 분화 경험과 어머니와의 분화 경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는 모두 원가족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한 반면, 삼각화와 정서적 분리는 원가족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가 다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남성은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정서를 언어로 기술하는 것도 잘 배우지 못한다(Rabinowitz & Cochran, 1994).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밀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대된다(Sabatelli & Bartle-Haring, 2003). 따라서 남



\*\*p<.01, \*\*\*p<.001

<그림 2> 여아집단 분석 결과 유의한 경로와 표준화 계수

성은 여성보다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관계지향적 상호작용에 유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은 남성과 여성이 부모로서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자녀는 정서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어머니에 비해 정서적 표현이 제한적인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삼각화와 정서적 분리와 같은 정서적 관계는 덜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부갈등에서 부모 자신의 갈등행동에 대한 지각과 배우자의 갈등행동에 대한 지각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간접적 갈등표현' 영역에서 아버지는 배우자가 자신보다 직·간접적 갈등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고, 어머니는 자신이 배우자에 비해 직·간접적 갈등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합리적 해결'과 '갈등회피' 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이 배우자에 비해 부부갈등시 합리적 해결과 갈등회피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즉 부부간에 갈등상황에서 직·간접적 갈등표현은 어머니가 많이 한다고 서로 동일하게 지각한 반면, 합리적 해결과 갈등회피는 자신이 배우자에 비해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여 부부간에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서로간 대화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행동에 대해 지각을 달리하는데 기인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결과라 할 수 있다(이미영·박혜인, 1995). 부부는 모두 자신들이 부부갈등시 더 합리적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고 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표현하는 주체는 아내라는 점에는 같게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이 부부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남편은 아내가 직접, 간접으로 갈등을 표현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 이면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은 일반 가정을 표집하여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지 않으나 이러한 가정의 부부사이에서도 갈등행동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부갈등이 심한

부부관계에서는 갈등행동에 대한 지각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간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다르며,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가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부부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의 양적 측면에 더하여 부부간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는 평균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체화증상과 비행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화증상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비행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대인 및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며(Lahey, Goodman, Schwab-Stone, Waldman, & Bird, 2000; McGee et al., 1992), 반면 여아는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 신체에 대한 불평 등의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오경자, 1991; 한미현, 1996; Eme, 1979)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성에 따라 행동문제 유형이 다른 것은 성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대와 사회화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을 보일 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정도가 높다. 반면 여아는 관계에 민감하고 외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 행동하도록 양육되고 내적 귀인을 하도록 장려되며 자기조절 능력을 갖도록 사회화된다(정문자, 2001). 이러한 학습은 여아에게 긴장과 위축을 조장하여 신체화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에서는 여아도 남아 못지않게 자기주장과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도록 가족 외적 맥락에서는 격려되고는 있으나 가족 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역할을 기대 또는 교육하고 있어(Ohannessian, Lemer, Lemer, & von Eye, 1995) 이러한 사회화로 인해 성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문제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남아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여아 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붕괴된 가족 관계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Emery & O'Leary, 1982; Simons & Chao, 1996), 특히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선행연구 결과(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와 일관된다. 연구 결과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이 동일하였다. 반면 부모의 낮은 원가족 분화 수준에 의해 유발된 부부갈등이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경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남아는 사회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어 금기시되어 왔으며, 분노 정서만 다른 정서에 비해 표현하는 것이 용인되어 왔다(Rabinowitz & Cochran, 1994). 또한 남아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로 표출하기가 쉽다. 실제로 남아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적 감정이라도 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반항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이민식, 1999). 이러한 가운데 부부갈등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켜 행동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Cummings & El-Sheikh, 1991; Davies & Cummings, 1994), 그 부정적인 영향은 여아에 비해 효과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여 해소하는 기술을 사회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남아에게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부부갈등이 행동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기제로 제시된 것으로는 갈등 상황에 부모가 보여주는 공격적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 동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역기능적인 귀인 양식을 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증가된 디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전연진, 2002). 이를 살펴보면,

여아보다는 남아가 취약하거나 용인되기 쉬운 부분들이며, 남아가 외현화 행동문제로 표출하기 쉬운 기제이므로 부모의 낮은 원가족 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을 통해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부부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기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한 예로 이민식(1999)의 연구처럼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를 매개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같은 인지적 변인을 첨가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부부갈등,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녀의 적응에 아동의 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성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는데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일방적 관계만을 검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의 경로가 인과관계로 해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참여자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야 했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응답자의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상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정문자, 2001) 학문적인 검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학문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환언하면, 아동의 문제를 아동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아동을 둘러싼 중간체계, 거시체계의 치료적 개입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 아버지와의 분화 경험과 어머니와의 분화 경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는 모두 원가족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한 반면, 삼각화

와 정서적 분리는 원가족에서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자신의 갈등행동에 대한 지각과 배우자의 갈등행동에 대한 지각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간접적 갈등표현' 영역에서 아버지는 배우자가 자신보다 직·간접적 갈등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고, 어머니는 자신이 배우자에 비해 직·간접적 갈등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합리적 해결'과 '갈등회피' 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이 배우자에 비해 부부갈등시 합리적 해결과 갈등회피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신체증상과 비행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증상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비행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남아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여아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 ■ 참고문헌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현정, 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청주시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 서연석(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은영, 김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7.
- 오경자(1991).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 및 진단. *한국아동학회 추계워크샵*, 5-20.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영, 박혜인(1995). 전화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화, 유가효(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1), 89-105.
- 이창만(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전연진(2002). 부모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연진, 정문자(2003).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8), 139-158.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 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정문자(1988). 유아의 문제행동. 제 10차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정문자(2001). 연구와 임상에서 살펴본 한국가족문제와 관련변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9(2), 1-34.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Inc.
- Bray, J. H., Williamson, D. S., & Malone, P. E. (1986). An evaluation of an intergenerational consultation process to increase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Family Process*, 25, 423-436.
- Cubberly, R. D. (1988). A study of personal develop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Texas Woman's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Cummings, E. M., & El-Sheikh, M. (1991). Children's coping with angry environments: A process-oriented approach. In E. M. Cummings, A. Greene, & K. Karraker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 on stress and coping*. Hillsdale, NJ: Erlbaum.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me, R. F. (1979). Sex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rejoinder.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5.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arrist, A. W. & Ainslie, R. C. (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40-163.
- Jeon, H. J. (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Kim, J. E., Hetherington, E. M., & Reiss, D. (1999). Associations among family relationships, antisocial peer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Gender and family typ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70(5), 1209-1230.
- Lahey, B. B., Goodman, S. H., Schwab-Stone, M., Waldman, I. D., & Bird, H. (200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oppositional behavior and conduct problems: A cross-sectional household study of middle childhood and

-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88-503.
- Lim, M-G.,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cGee, R., Feehan, M., Williams, S., & Anderson, J. (1992). DSM-III disorders from age 11 to age 15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50-59.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5). Discrepancies in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s'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490-516.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1), 48-75.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abinowitz, F. E., & Cochran, S. V. (1994). *Man alive: A primer of men's issue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abatelli, R., & Bartle-Haring, S. (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Simons, R. L., & Chao, W. (1996). Conduct problems. In R. Simons & Associates(Eds.),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ress, interaction, and child outcomes*(pp. 125-143). Thousand Oaks, CA: Sage.

---

(2004년 4월 16일 접수, 2004년 6월 29일 채택)